

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

▶ 물놀이 안전사고 주요 원인



① 수영미숙



② 심장마비



③ 안전수칙 불이행



④ 자살



⑤ 음주

▶ 물놀이 전 안전수칙

- ①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후 들어갑니다.
- ② 해수욕장, 하천 등에서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.
- ③ 음주 후 수영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.

▶ 물놀이 사고 시 대처요령

- ① 익수사고 발생 시 **주위에 소리쳐 알리고(즉시 119신고)** 구조하려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아야 합니다.
- ②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물놀이 현장에 비치된 **안전장비(구명환, 구명조끼, 구명 로프 등)**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합니다.
- ③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에는 **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** 등 응급처치를 실시 합니다.

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물놀이 안전수칙

- ✓ 철저히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.
- ✓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 즉시 물에서 나와 몸을 말린다.
- ✓ 사탕이나 껌을 입에 넣은채로 수영하지 않는다.
- ✓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.
- ✓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이용한다.
- ✓ 안전요원의 시야범위 안에서 물놀이를 한다.
- ✓ 사고 발생지역이나 입수가 금지된 곳에선 절대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.
- ✓ 물살이 강해지거나 수량이 증가하면 즉시 물가에서 벗어난다.